



7월 12일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요. 삼손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 주었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좋아했어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돈을 받고 삼손에게 물었어요.

“삼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날마다 졸랐어요. 결국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해 주었어요.

“나의 힘은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요.”

들릴라는 잠이 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어요.



그러자 삼손은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삼손은 뽕뽕 묶여서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비웃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삼손은 잔칫집의 두 기둥을 힘껏 껴안았어요. 그러자 집이 와르르! 무너져, 삼손과 함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 저금통은 매일매일 무거워졌어요.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엄마는 약속을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남우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와 동생하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남우도 갑자기 뛰고 싶었지만, 엄마와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다칠 수 있으니 뛰지 말고 얹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남우는 조용히 연극을 봤어요. 남희도 오빠를 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엄마는 이런 남우와 남희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즐거운 활동



힘이 센 삼손이 양들을 번쩍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을 들었을까요?
상상하며 그려 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8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